

“문화예술회관장 ‘개방형’ 해제 안된다”

광주시 공직자 임명 방침에 지역 문화·시민단체 반발 시 “추후 개방형 재도입할 수도”

광주시가 최근 문화예술회관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하기로 한데 대해 지역 문화계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2019년 처음으로 공모를 통해 민간인 전문가를 영입, 회관 운영을 맡겨 왔지만 최근 성현출(57) 광주문화예술회관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개방형 직위를 해제하고 공직자를 다시 문화회관장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광주일보 8월 29일자 16면·1일자 17면〉 이에 시)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시)한국민족극협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등 지역 문화단체와 광주시립극단 부조리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2일 각각 성명서를 내고 시의 문화예술관장 ‘개방형 직위’ 해제를 규탄하고 성 관장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하지만 시는 당초 계획대로 개방형 직위를 해제한다는 입장이다.

시)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등은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가 문화예술회관장의 개방형 직위를 해제하기로 한 것이 문화행정의 혁신이고 품격 있는 문화도시의 모습이다”며 “문화행정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지역 문화계와 예술인들을 무시하는 광주시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한편의 잘 짜인 드라마의 각본처럼 성 관장의 사의 표명과 광주시의 즉각 수리 및 개방형 직위 해제라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한다”며 “지역 문화계와의 어떠한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방형 직위를 해제한 것에 대해 광주시는 즉각 사과하고 조속하게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문화단체 등은 2일 광주시의 문화예술회관장 개방형 직위 해제에 대한 규탄의 성명을 냈다. 사진은 광주문화예술회관 전경.

광주시립극단 부조리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등도 ‘개방형 직위’에 대한 광주시의 일방적인 해제 철회와 성현출 관장의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초로 도입한 ‘개방형 직위’ 지정을 해제한 광주시를 규탄한다”며 “지역 문화계, 시민사회와의 어떠한 소통 없이 개방형 제도 도입과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평가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해제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또 이들 단체는 모두 성현출 관장에 대한 보은 인사와 관장으로서 책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등은 “개방형 직위로 전환된 이후 처음 임명된 성 관장은 임명 당시에도 전문성 부족과 보은 인사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지적했으며, 광

주시립극단 부조리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등도 “성 관장은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보은 인사 등의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임명이 강행됐다”고 주장했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계획대로 문화예술회관장 개방형 직위 해제 절차를 진행중이다”며 “법제심사·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회관 리모델링 등 중요한 사업이 진행중으로 인사에 공백이 발생하면 업무에도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다음 관장을 임명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개방형 직위를 해제하지만 이후 상황에 따라 다시 도입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한문·문인화... 다양한 서예 한자리서 본다

광주·전남 서도대전 입상작 전시

다양한 서예 작품을 만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14회 광주·전남 서도대전 입상작 전시회가 4일부터 7일까지 광주예총 백련갤러리에서 열린다.

한국서도협회 광주·전남지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한글, 한문(행서·해서·예서), 문인화, 캘리그래피 등 6개 분야로 진행됐으며 500여점의 출품작 중 대상 1명, 우수상 5명 등 모두 221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는 작품의 구성, 묵색의 농담, 창의성, 작가의 필력 등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한문 서체를 비롯해 고유한 한글 서체, 캘리그래피 등 새로운 시도를 한 서예 작품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전시에서는 대상 수상작인 나경수 작가의 ‘파초와 닭’을 비롯해 우수상 수상작 김영현의 ‘자아도취’, 김재의 ‘공당’, 이재은 작 ‘매화’, 천두봉 작 ‘잔설’, 에이코의 ‘월두막’ 등이 전시된다. 또 특별상을 수상한 배은희의 ‘담설야중’, 장경자의 ‘만공산취’ 등 입상작들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고두순·고재환·김귀재·김삼수 등 추천작가 23명의 작품도 전시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나경수 작 ‘파초와 닭’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 콘서트

12일 ACC 예술극장 극장2

세계 최고 권위의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피아노 부문 올해 수상자들이 ACC 슈퍼클래식 무대에 오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은 2021 ACC 슈퍼클래식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 콘서트를 오는 9월 12일 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선보인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쇼팽 콩쿠르, 차이콥스키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콩쿠르로 손꼽힌다. 매년 5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콩쿠르는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성악 등 4개 부문 경연을 매해 번갈아 개최한다.

이번 무대에는 2021년 피아노 부문 수상자 조나탕 푸르녘(1위)과 무키와 게이코(3등)가 출연한다.

조나탕 푸르녘은 이번 공연에서 브람스의 ‘피아노 소나타 3번’을 연주한다. 퀸 엘리자베스 음악 재플 레지던스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예술가 권리를 보호하는 프랑스 사회단체인 아다미(ADAMI)가 젊은 연주자에게 수여하는 ‘레베라시옹 클라시크’에 선정됐다.

무키와 게이코는 바흐의 ‘프랑스 조곡 5번’과 라벨의 ‘쿠프랭의 무덤’을 들려준다. 대답하면서 치밀한 선율로 관객



조나탕 푸르녘



무키와 게이코

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는 3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 수많은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공연 입장권은 ACC누리집과 콜센터로 통해 예매 가능하다. 티켓 가격 3만원, 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여름 끝자락에 듣는 뮤지컬 갈라·오페라 아리아

순수, 4일 시즌 첫 공연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언덕

‘야외에서 펼쳐지는 오페라와 뮤지컬의 향연’

근대역사문화마을 양림동을 거점으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소개해온 ‘순수’가 “그 여름의 끝에 뮤지컬 갈라와 오페라 아리아의 밤”을 주제로 오는 4일 오후 7시 광주시 남구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언덕에서 시즌 첫 번째 공연을 시작한다.

‘2021 지역특화문화거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잘 알려진 뮤지컬과 오페라의 명곡들을 통해 관객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한다.

레퍼토리는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중 ‘이룰수 없는 꿈’, ‘오페라의 유령’ 중 ‘나를 생각해 줘요’, ‘알라딘’ 중 ‘아름다운 세상’, ‘이순신’ 중 ‘나를 태워라’, ‘노트르담 드 파리’ 중 ‘대성당의 시대’, ‘갯중’ 중 ‘메모리’, ‘모차르트’ 중 ‘황금별’ 등이다.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아름



윤하나

다운 오페라 아리아도 만날 수 있다. ‘주디타’ 중 ‘뜨거운 내 입술의 키스’, 푸치니의 ‘토스카’ 중 ‘별은 빛나건만’, 리하르의 ‘유쾌한 미망인’ 중 ‘입술은 침묵하고’ 등이다.

그밖에 드뷔시의 ‘플루트 솔로를 위한 시링크스’도 들려준다.

공연에는 소프라노 백가은·윤하나·송주혜, 테너 김태연·류건우·송태우, 바리톤 박성호, 플루트 김지현, 피아노 김은희, 신디사이저 오세주 등이 참여한다. 그랜드 오페라단이 함께 행사를 준비했다. 문의 062-651-097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문화예술강좌 수강생 모집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2021 하반기 전통문화예술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9월 1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통문화관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수강생 수련도 등에 따라 구성됐다.

광주시 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강사진이 꾸려졌으며 수강신청은 오는 8일까지다.

구체적인 강좌는 ▲판소리 중급반 방성춘(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6호 판소리춘향가 보유자), 이순자(“제1호 남도판소리 춘향가 보유자), 김선이(“제1호 남도판소리 흥보가 보유자), ▲판소리 초급반 박미정(“제16호 판소리춘향가 전승교육사) ▲판소리고법 양신승(“제11호 판소리고법 전승교육사) ▲청소년 가야금명창에 문명자(“제18호 가야금명창 보유자) ▲가야금명창 이영애(“), 황승숙(“) ▲전통음식 최영자(“제17호 남도의례음식장 보유자)이다.

수강생은 14개 강좌별 12명씩 선착순 모집하며, 수강료는 5만원. 재료비 별도. 문의 062-670-850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주)쓰리에이치광주대인센터

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온열, 지압, 뜸, 마사지 가능
의료가·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지산로78번길 13. 검찰청당배락빌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로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게임오거리입구 3층)
전자오케스트라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음 장비
☎ 062-225-4445, 010-3603-3064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공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해미패션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계량한복·무대의상·작품한복전문
☎ 062)224-5958, 010-6777-5958

(주)K&J컴퓨터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255, 3층
미래를 생각하는 제테크, 신재생에너지 제테크
원금보장, 안정된 높은 수익
☎ 1899-1972

양지공인중개사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70
(두암동 946-7)
☎ 062)263-2223, 010-3819-6595

써니헤어샵가발

나주시 성북동 4거리 삼성디지털프라자 옆
최신식 두피 케어 전문
컷트, 파마, 염색, 탈모관리, 히피염 전문
전화예약 ☎ 010-3996-0489

한국기원

광주 북구 운암동 450-17
(운암시장 앞 한국회관 3층)
바둑 원장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넓고 깨끗한 환경
☎ 010-8610-8373

석당화랑

동구 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유품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옛골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대신청소전문기업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54, 2층
학교청소, 공장청소, 업소청소, 외벽청소
현장청소, 준공청소, 입주청소, 거주청소
이사청소, 해충방제
☎ 062)526-1133, 010-6522-1524

송가네반찬

광주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초대화랑

동구 공동 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고전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새희망직업소개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54, 2층
남·여 인력 향시모집
☎ 062)531-5511, 010-6522-1524

동태랑대구랑전문점

나주시 남내1길 4-1
각종 모임 환영
☎ 010-2127-0888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